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철강화학과 문동민 과장(044-203-4280), 정성훈 사무관(4286)

산업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2014년도 철강업계 3대 과제 제시

1. 글로벌 초일류 수요기업들이 요구하는 철강소재 개발
2. 산업간 협업을 통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3.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철강산업의 책무 수행

- 철강업계 CEO 간담회 및 2014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1.8(수)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철강산업의 3대과제로서 ① 글로벌 초일류 수요기업들이 요구하는 철강소재 개발 ② 산업간 협업을 통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③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철강 산업의 책무 수행을 제시함

< 철강업계 CEO 간담회 및 2014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

○ 일시 및 장소 : '14. 1. 8(수) 16:30~18:20, 포스코센터 서관
○ 행사내용
- (간담회) 16:30~17:20, 포스코센터 서관 19층
- (신년인사회) 17:30~18:20, 포스코센터 서관 18층

○ 주요 참석자
-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 포스코 정준양 회장, 현대제철 박승하 부회장 등 철강업계 CEO(13명) 등
- (신년인사회) 철강업계, 학계, 수요기업 등 약 2백여명

1. 철강업계 CEO 간담회

□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윤상직 장관은 향후 수년간이 우리 철강산업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제언

- (수요측면) ① 초경량, 초고강도, 고내식 등 극한물성 수요 증가 ② 해양플랜트, 셰일가스 유정용 강관 등 에너지 분야 철강 수요 증가 ③ 탄소소재,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철강 대체소재 보급 가속
- (공급측면)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심으로 설비확충 지속, 국내적으로도 공급능력 확대로 공급과잉 심화
  * 세계 철강산업 과잉설비규모('12년) 4.5억톤(세계 철강수요의 약 30%)
- (통상) 최근 멕시코,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수입규제 확산에 따라 우리 철강재 수출에 차질 우려
-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철강은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산업으로 향후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좌우
  * 철강업계 전력사용 비중은 국내 전력소비량의 10% (제조업의 20%)
  * 철강산업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 국내 배출량의 12% 점유

○ 업계는 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철강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 등을 건의함

□ 이에 대해 윤상직 장관은 철강산업 뿐만아니라 여타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등 전분야에 걸쳐 FTA 체결의 이득이 고루 향유될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

○ 아울러 통상마찰 등으로 철강업계 경영여건이 쉽지 않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도 우리 철강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자고 함

□ 한편, 철강협회는 2014년 철강산업 전망을 발표함

○ (세계시장)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라 세계 철강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성장세가 크지 않아 글로벌 공급과잉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14년도 철강수요 증가율 전망(전년대비, Worldsteel) : (세계) 3.3 (중국) 3.0 (NAFTA) 3.2 (EU) 2.1

○ (국내시장) 철강수급은 전년대비 소폭 개선될 전망이나 설비증설,

수출환경 악화 등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

* '14년 국내 철강수급 전망(전년대비, 철강협회) : (내수) 1.0% (수출) 5.6% (생산) 2.9% (수입) △0.8%

2. 철강업계 신년인사회

□ 윤상직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13년을 돌아보며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엔저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적 위기요인에도 불구하고

○ 대내적으로는 창조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융합, 혁신의 풍토가 자리를 잡아가는 한 해로 평가함

○ 철강산업의 경우 생산과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앞으로도 철강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언급함

* 철강생산(만톤) : ('12) 7,205 → ('13) 6,901 → ('14,e) 7,162
* 철강수출(억불) : ('12) 370 → ('13) 326 → ('14,e) 330

○ 또한, 우리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3대 실천과제인 ①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②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③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를 강조하고,

○ 관련하여 우리 철강산업의 3대 과제를 제시함

(1) 글로벌 초일류 수요기업들이 요구하는 철강소재 개발

- 민관협력 방식으로 극한물성 철강소재 개발추진

(2) 산업간 협업을 통한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 세일가스용 철강재 개발 및 테스트베드 사업(철강-에너지 협업), 광양과 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사업(철강-석유화학 협업)의 착실한 추진

(3)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철강산업의 책무 수행

-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업풍토 정착

-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

- 동·하계 절전, 폐열/부생가스 활용, ESS(에너지 저장장치) 도입 등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

□ 이에 대해 업계를 대표하여 철강협회 정준양 회장은 혁신과 창조, 경영합리화, 중소/중견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철강산업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 산업간 융합기술 분야 R&D 투자를 통해 철강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주력하여 창조경제의 실현에 기여하자고 화답함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정성훈 사무관 (☎ 044-203-428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철강업계 CEO 간담회 및 2014년도 신년인사회 개요

1. 행사개요

□ 일시 및 장소 : 1.8(수), 16:30～18:20, 포스코센터(서관)

* 간담회(19층), 신년인사회(18층)

□ 참석자

① 간담회 : 장관, 포스코 정준양 회장, 현대제철 박승하 부회장 등 철강업계 CEO(13명), 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

② 신년인사회 : 철강업계, 학계, 수요기업 등 약 2백명

2. 진행 순서

행 사	시 간	내 용	비 고
간담회	16:30～16:35 (5분)	참석자 소개	사회: 철강협회
	16:35～16:40 (5분)	인사말씀	장관
	16:40～17:20 (40분)	자유토론 - 2014년 철강산업 전망(협회) -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	
	17:20～17:25 (5분)	마무리말씀	장관
	17:25～17:30 (5분)	이 동	
신년 인사회	17:30～17:35 (5분)	기념촬영	
	17:35～17:40 (5분)	개회 및 귀빈 소개	사회: 철강협회
	17:40～17:45 (5분)	인사말씀	정준양 회장
	17:45～17:50 (5분)	신년사	장관
	17:50～17:55 (5분)	건배 제의	철강업계
	17:55～18:20 (25분)	환 담	스탠딩 방식 다과회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